

타이완에서 “대~한민국”을

고신의대 이 용 환

제17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가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만의 타이페이시에 위치한 Grand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 참가자 수는 28개국에서 약 550명이었으며, 한국에서는 28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도 하고, 토론할 기회도 가졌다. 특히 이번 학회는 대한산업의학회가 아시아 산업보건학회의 기관회원이 된 첫 학회로서 학회 내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학회의 일정은 오전에는 Keynote speech, 오후에는 Mini-symposium과 Oral session이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Keynote speech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았다.

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Malaysia, KG Rampal)
2. Estimation of quality-adjusted survival and survival-weighted health profile for outcome evaluation on occup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policy (Taiwan, JD Wang)
3. Occupational neurotoxicity and neurobehavioral change (Korea, SK Kang)
4. Management system for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ome of the latest news (USA, SP Levine)
5. An effective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in Taiwan (Taiwan, TS Su)
6. Managing the epidemic of work-related stress - A national health and safety approach (UK, D Snashall)
7. Directions and plans on occupational medicine research development in Taiwan by the National Health Research Institutes (Taiwan, LW Chang)
8. Human health effects of PCBs and dioxin-like chemicals (Taiwan, L Guo)
9. The use of salivary biomarkers in occupational health (Singapore, D Koh)
10. Benzene-induced bone marrow depression and leukemia (USA, R Snyder)
11. Role of genetic poly-morphism in huma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diseases (USA, JY Hong)
12. Asbestos and silica related health issues in Asia (Japan, K Takahashi)
13.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toxicology of mercury (Japan, H Satoh)

우리나라에서는 강성규(산업안전공단) 선생님이 “Occupational neurotoxicity and neurobehavioral change”란 주제로 11월 1일 발표를 하였다.

한편 Mini-symposium은 다음의 주제로 열렸다.

1. Biomarkers
2. Reproductive hazard
3. Occupational health
4. Dioxin and Agent Orange: An Asian view
5. Occupational health promotion
6. Occup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 in Busan-Ulsan-Kyungnam area in Korea
7. Advances in environmental health: Combining laboratory and community approaches for environmental health
8. Organic dusts-An important occupational hazard
9. Semi-conductor



“Biomarker”를 주제로 한 Mini-symposium에서는 강대회(서울의대), 홍윤철(인하의대) 선생님이 연자로서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2일의 “Occup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 in Busan-Ulsan-Kyungnam area in Korea”란 주제의 Mini-symposium에서는 채창호(마산삼성병원), 류철인(울산의대), 강동묵(부산의대), 김정일(동아의대), 이동준(부산의대), 이용환(고신의대) 선생님 등 6명의 발표자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지역 직업병 감시체계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Oral presentation에서는 총 66편의 연제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준연(동아의대), 강성규(산업안전공단), 임종환(인하의대), 이경호(서울의대) 선생님 등이 발표를 하였고, 총 89편이 발표된 Poster session에서는 이병국(순천향의대), 이세훈(가톨릭의대), 노재훈(연세의대), 이성수(순천향의대), 이용환(고신의대), 황보영(순천향의대), 송옥영(농촌기술연구원) 선생님 등이 모두 9편의 연제를 발표하셨다. 한편 좌장으로는 김준연(동아의대), 강대회(서울의대) 선생님이 수고를 하셨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 산업보건학회의 발표자들에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송옥영 선생님은 Young Asian Science Award(YASA)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회의 첫 날 Opening ceremony에서는 대만의 부총통이 직접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는데 비록 환영사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여 약간 미묘한 느낌을 받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대만 정부에서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를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때마침 대만에서도 산업의학전문의 제도가 11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서 145명의 산업의학 전문의가 탄생하였으며, 11월 3일 오후에는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의 전망에 대해 Group discussion을 하는 자리까지 따로 마련이 되었다. 폐회식 행사 때에는 국립 대만대학 교수인 Jung-Der Wang에게 대표로 산업의학 전문의 증서가 수여되었다. 11월 4일자 대만의 조간 연합보(聯合報) 신문에서는 1면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기사로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시행과 직업병 발생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것을 보고는 대만에서는 산업보건이 아주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 자문위원에는 우리나라 대표로서 김준연(동아의대), 강대희(서울의대)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김준연 선생님은 11월 1일과 3일에 있었던 평의회에서 학술대회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계속 참여를 하셨다. 차기 18차 학술대회 개최지로서 뉴질랜드가 제안서를 냈으나 중국이 뒤늦게 제안서를 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달 뒤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차기 개최지가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차기 개최지 국가 대표가 회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차기 회장 역시 선임되지 못하였고, 여타 임원 선임 건도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또한 AAOH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제안서를 내기로 하였으며, 이 역시 2달 뒤의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학회 중에 잊지 못할 일은 11월 2일의 Banquet이었는데, 사회를 본 Mr. Tan의 뛰어난 영어



싱가포르의 David Koh와 함께



화련 대리석 공장에서

실력과 매너는 정말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식사 중 악단이 각국의 대표적 노래를 하나씩 부르던 도중 아리랑이 연주되자 한국의 김영욱(마산삼성병원), 김동일(상북삼성병원) 선생님이 뛰어 나가 아리랑을 불렀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참석자 모두가 큰소리로 아리랑을 합창하였고,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도 흥을 맞추어 주면서 전체적인 연회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각국의 노래 자랑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참가자들은 모두 무대에 나가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랑해”를 열창하였으며, 월드컵 때의 “대~한민국”도 목이 터져라 연호하면서 연회의 분위기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압도하였다.

해프닝도 있었는데, 마지막 날 Keynote speech 시간의 연자가 Jun-Yan Hong(미국)이었는데, 좌장이 연자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홍윤철 선생님의 이력을 열심히 읽어나가자 연자가 자신에 대한 소개 내용이 아니라면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여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연제가 발표되고 참가자 수도 많았지만, 진행상의 미숙한 점도 있었다. 사전 등록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첫인상이 나쁘기도 하였으며, 중국 측에서 많이 참가하지 않아서 예년에 비해 발표 연제 수가 적다는 느낌도 있었다. 그러나 식사 시간에는 항상 풍부한 먹을거리가 나와서 체중에 신경을 쓰게 만들었으며, 이번 학회에 대한 대만 정부의 각별한 후원 탓인지 학회 개최 장소인 세계 10대 호텔 중의 하나라는 Grand Hotel은 시설과 경관 모두 참으로 훌륭하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 수준인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를 뒤쫓아 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한국의 실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화 중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니까 대만도 시행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다. 그렇지만 학회에 참석한 대만의 많은 학자들은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해외 연수를 갔다 오지 않았을 것같은 젊은 사람들도 훌륭한 발음의 영어 실력에 주눅이 들 정도였다. 3년 뒤인 2005년도의 학회 개최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더욱 많은 연제가 발표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문**